"智와 行 갖출때 경제난 극복"

한국의 위기 불교적 해결 제시 논문 2편

◇박경준교수

◇한종만교수

박경준교수 **"정신적-물질적 충족 균형 필요"**

한종만교수 **"정법념처경의 치국관 지켜야"**

경제위기가 가중됨에 따라 우리 사회는 극심한 정치·문화적 혼란까지 겪고 있다. 이러한 혼란의 원인을 불교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극복할 방안을 제시한 논문이 잇따라 발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박경준 교수(동국대 불교학부)가 최근 한국철학회에서 펴낸 논문집 〈문화의 진보에 대한 철학적 성찰〉을 통해 '문화의 진보에 대한 불교적 관점'을 발표한 것을 비롯, 오는 8월 출간 예정인 〈한국불교사상의 전기〉(민족사)에 게재된 한종만 교수(원광대 동양종교학과)의 '불교의 경세사상'은 불교사상에 나타난 '경세론(經世論)'을 조명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행하는 실천속에서 현 위기는 극복될 수 있음을 전망했다.

'문화의 진보에 대한 불교의 관점'에서 박경준 교수는 불교의 경제관을 '정신적 충족도와 물질적 충족도의 균형'으로 설명하고, 현 경제위기의 해결방안으로 제시했다.

박교수는 "필요 이상의 물질적 충족은 오히려 정신 상태를 해이하게 만들어 결국 정신적 충족도를 감소시키고 고통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부처님께서 극단적인 고행주의의 삶을 금하고, '먼저 기술을 익히고 난 후에 재물을 구하라'고 가르치며 검소하고 절약하는 생활을 강조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는 것.

박교수는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경제위기도 극단에 치우친 소비와 정경유착 등에서 비롯됐다고 본다"며 "삼의일발(三衣一鉢)로 철저한 검약생활을 지킨 출가정신 실천에 불자들이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교적 문화의 개념에 대해 "불안함, 불편함 등 고통을 최소화하고 즐거움을 극대화하는 것이 '문화'라면 '고(苦)의 자각을 통한 고의 극복'을 근본 내용으로 하는 사성제의 가르침은 불교의 문화개념"이라고 정의했다. 박교수는 "우리가 겪고 있는 문화적 혼란은 외적 물질적 고통보다는 내적·심적 고통의 극복을 통해 가능하다"며 수행을 통한 마음의 다스림이 요즘과 같은 어려움을 이겨낼 관건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 보았다.

'불교의 경세사상'에서 한종만 교수는 "불교의 경세사상은 정치 지도자들이 국민을 부처님으로 모시고, 철저한 도덕성과 현명한 능력으로 참다운 의미에서의 민주정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교수는 "일반적으로 불교는 세간(世間) 생활을 부정하는 것으로 인식하지만 이는 불교에 대한 사회의 관점이 출가주의로 인식, 불교가 현실문제에 대해서도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을 간과한 것"이라며 "〈정법념처경(正法念處經)〉에 나온 경세사상을 우리의 정치가, 경제인들이 명심했다면 경제 위기란 애초부터 나올 수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법념처경〉에서는 '치국(治國)의 도(道)'에 대해 외적으로는 △법의 준수와 비리척결 △인격을 갖춘 성인(聖人)의 가르침에 따른 정치, 내적으로는 △지(智)와 행(行)의 겸비 등 정법(正法)의 근행(勤行)을 통해 다스릴 것을 강조하고 있어 이러한 '치국의 도'는 지금 우리나라가 가장 필요로 하는 준거가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교수는 "경전에서 보여지는 불교의 경세사상은 현재 우리사회가 겪고 있는 어려움의 인과에 대해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다"며 "지도자와 국민 모두가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실천한다면 지금의 위기는 쉽게 극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정은 기자 〈jekim@buddhapia.com〉

"空과 세속윤리 갈등없다"

대장경硏 '공과 연기 현대적 조명' 세미나

모든 것의 실체성을 부정하는 공(空)의 교설은 세속적 윤리와 무관한 것일까.

"오히려 공에 대한 철저한 자각이 선행되어야 진정한 윤리가 가능하다"며 "공과 세속적 윤리는 갈등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동국대 학술관에서 열린 고려대장경연구소(소장 종립스님) '공과 연기의 현대적 조명' 3차 세미나에서 김성철씨(중앙승가대 강사)는 '공과 윤리'를 통해 "교리적으로 공사상의 이제설(二諦說)에서 엄연히 세속적 윤리를 인정하고 있다"며 "논리적으로 자타(自他)가 불이(不二)하기에 우리는 이타적이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세속적 윤리의 관점에서 제기되는 '일체가 공(空)하여 선악(善惡)이 없다면 선을 행할 것도 없고, 세속이 곧 열반이라면 수행도 필요없으니 막행막식을 해도 되는 것 아닌가?'라는 의문에 대해 〈중론(中論)〉이나 〈대지도론(大智度論)〉 등의 논서는 공에 대한 이런 오해를 경계하고 있다는 것.

즉 이제설은 출세간적 진리를 가리키는 진제(眞諦)와 세간적 진리를 일컫는 속제(俗諦)로, 피상적인 공의 교설은 진제적 교설에 속하고 윤리는 속제적 규범에 속한다. 김씨는 "모든 것을 무차별하게 부정하는 듯한 공의 교리이지만 세속적 윤리는 이제설을 통해 철저하게 긍정된다"며 "진정한 윤리란, '내가 무엇을 한다'는 관념 없는 무애심(無碍心)에 입각한 육바라밀의 윤리"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문화는 공성(空性)에 대한 반역인가?-문화철학으로서의 공철학의 의미와 한계-'에서 박병기 교수(전주교대 윤리교육과)는 "공철학은 그 자체로 문화철학으로 해석될 수 있는 충분한 잠재 가능성을 지녔다"며 "공철학 자체가 현대 문명비판의 중요한 준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문화철학은 20세기 초 정착된 개념으로, '문화'의 개념 정의와 산업화의 결과로 등장한 현대 문명에 대한 비판의 필요성에 의해 역설된 새로운 철학분야.

이어 박교수는 공철학이 새로운 문화철학으로서의 위상 확보와 기능을 다하기 위한 조건으로 △개방적 논의를 통해 현대적으로 재구성 될 것 △현대문명에 대한 비판적 대안을 자체논리 속에서 찾으려는 노력 등을 제시했다.

김정은 기자

"낙태반대는 현실적 보살행"

동국대서 박사학위 받은 테데스코 교수

"불교와 낙태에 관한 연구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낙태문제에 뒷짐만 지고 있는 한국불교계의 관심을 이끌어 낼 수 있었으면 합니다."

'불교사상을 통해 본 한국사회의 낙태문제 연구'로 오는 8월 동국대에서 98년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프랭크 테데스코 교수(세종대 영문과).

테데스코 교수는 "낙태분야의 연구성과가 상대적으로 부족해 자료조사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이 분야의 연구를 지속, 불교가 보살행의 실천으로써 낙태반대운동과 교육프로그램 시행 등 제도적인 참여를 펼칠 수 있도록 하고싶다"고 밝혔다.

논문을 쓰기위해 낙태아 천도재를 봉행해 온 스님들과 동참자들과의 면담도 시도했다는 테데스코 교수는 "한국불교는 뛰어난 생명윤리를 갖고 있지만 천도의식 외에는 낙태문제에 관한 관심은 없다"며 "이는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은 뒤로한 채 전통적 수행법과 경전공부에만 몰두하고 있기 때문은 아니냐"고 반문했다. 아시아 성학회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테데스코 교수의 낙태문제에 관한 관심은 남다르다.

"이번 연구가 불교의 생명관 연구뿐만 아니라 종교의 생명윤리 분야 연구에 초석이 되길 바랍니다. 또 유구한 한국불교의 집적된 지혜가 21세기의 도덕적, 사회적 양심을 일깨워 줄 것을 기대합니다."

김정은 기자

국제소식

泰 경제위기 극복기금 스님도 180만 달러 모금

태국의 한 스님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 1백80여만 달러를 태국의 중앙은행에 기부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방콕에서 사찰을 관리하고 있는 프라 마하 부아 야나삼파노스님이 4월12일부터 '태국 경제위기 극복 기금' 모금을 전개해 지금까지 모은 금 182.2kg과 1천2백여바트(태국 통화) 등 미화(美貨) 1백8십여만 달러의 기금을 모은 것.

태국의 경제위기타계위원회 코로넬 설드삭 차이야시트씨는 "이렇게 많은 모금액이 중앙은행에 기부된 것은 처음"이라며 "중앙은행은 이 기금을 마련한 수천여명의 불자들의 보시정신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태국의 현역 군인들이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처음으로 모금운동을 벌였지만 금 150kg만을 모으는데 그쳤다.

태국 정부는 지난해 7월2일 태국의 통화인 바트가 평가절하되면서 경제위기를 겪고 있으며 외채가 이미 172억달러를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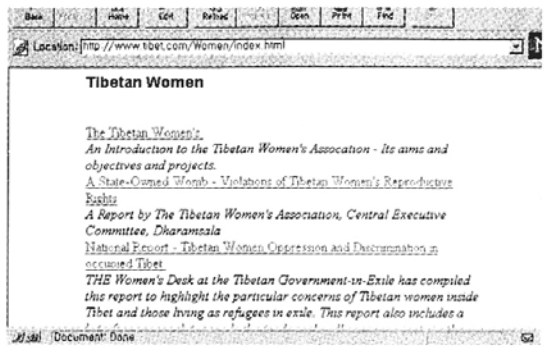
美 거주 동남아 불자들 매년 7월4일 '불교축제'

태국·캄보디아·미얀마·베트남 등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동남아시아계 불교신자 2천여명이 미국 독립 기념일인 4일 美 워싱톤 케틀렛가(街)에 있는 라오부다뽕사원에 모여 불교축제를 개최했다고 워싱톤포스트지가 보도했다.

라오부다뽕 사원의 신도 앨리사 니그엔은 "아무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법회도 보고, 수행도 할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 그는 1980년에 보트를 타고 라오스를 탈출했다.

이 축제는 아찬 찬다폰스님(라오부다뽕사원 주지)의 법어로 시작해 각국의 전통무용, 불교 공예품 전시, 각국 불교의 수행법과 교리 강좌 등으로 진행됐다.

오종욱 기자



부다피아 사이버 기행

티벳 여성협회

1959년 4월12일 중국이 티벳을 강점한데 항거하기 위해 라사에 모인 수천명의 티벳 여성들 중에서 인도 등 해외 각지로 망명한 티벳의 여성들이 모여 결성한 티벳여성협회(The Tibetan Women's Association).

회원 대부분은 당시 라사의 포탈라궁 인근 지역에서 평화시위를 전개하다가 투옥되어 비참하게 고문을 당했던 사람들.

그뒤 그들은 해외에 망명중인 수많은 티벳 여성들과 함께 인도 달람살라의 맥레오드 간쥐 지역에서 1984년 협회를 조직했다.

티벳여성협회는 티벳 고유의 종교와 문화 그리고 티벳 국민

여권회복 운동 '적극' 티벳 상황 해외 홍보 망명자 구호도 앞장

들의 정체성을 보호하기 위해 여성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모색하고 있다. △티벳과 망명중에 있는 티벳 여성들의 사회·경제·정치적 권한 획득 △교육·문학·출판을 통한 티벳의 문화·언어 전통의 보존 △빈곤한 티벳 가족·결손가정 어린이·비구니스님·장애인·노약자들에 대한 구호활동 △평화와 정의 실현을 위해 세계 여성들과의 연대 활동 △가족계획을 위해 티벳 여성들에게 산모와 육아 정보 제공 △티벳의 정치 상황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중국으로부터 박해받는 티벳 국민의 생활여건 개선 등에 놀라운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 곳에서는 '티벳 교육 현황-대안 교육 중심으로' '생태학과 인간의 교육' '1997년 중국 인권 보고서' 등 다양한 교육 자료들을 열람할 수 있으며 달라이 라마가 최근 발표한 '환경보호를 위한 불교윤리적 접근'도 읽을 수 있다.

티벳망명정부 산하 기구로도 잘 알려진 티벳여성협회는 1990년 달람살라에서 첫 국제총회를 개최하고 티벳 여성을 대표하는 단체로 탈바꿈해 나아갔다. 현재 네팔 등 36개에 지회를 두고 있으며, 해외 망명지에서 자생한 7개의 티벳 비구니 스님들의 모임도 지원하고 있다.

지난 4월 중국 강점 39년째를 맞아 달라이 라마는 "티벳에서 해외로 망명한 비구니 스님들이 티벳의 정치적 독립을 담성하기 위해 엄청난 희생을 감수해왔다"며 "티벳의 독립을 바라는 성직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찬양했다.

그동안 티벳여성협회는 비구니 스님들의 교육 등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해 왔을 뿐만 아니라 해외 망명지에서의 티벳인들의 독립의 꿈을 실현하는데 경제적 지원과 피난처를 제공해 왔다. 또 티벳 비구니 스님들에게 일시로 거처할 곳과 음식 그리고 교육 여건을 제공해, 망명지에서 그들의 복지를 향상시키는데 공헌하고 있다.

1987년 티벳여성협회에서는 티벳 종교와 문화 사업과 관련해 '티벳비구니 프로젝트(The Tibetan Nuns Project)'라는 사업단을 발족시켰다. 이 사업은 티벳 비구니 스님들이 티벳 종교와 문화를 학습하는데 필요한 환경조성 뿐만 아니라 의복, 음식, 수행처를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 현재 티벳 비구니 프로젝트는 해외 망명지에서 티벳 비구니스님 5백여명에게 수행과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할 수 있을 만큼 성장했다.

www.tibet.com/women/twa.html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원·에·스·님·수·상·집

열린마음 열린불교

열린 마음은 모든 것의 출발

불교의 건강하고 밝은 미래를 위해 포교에 애쓰는 원혜 스님의 수상집 《열린마음 열린불교》에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빛나는 진리를 체득한 수도자의 지혜가 한올한올 엮어져 있다.

'저는 열린 마음이 모든 것의 출발이라고 봅니다. 불교적인 표현을 빌리자면 모든 것은 마음이 지었다는 一切唯心造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는 갑자기 열린 세계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이 먼저 열려야 세계가 열립니다.' -본문에서

'나 하나만의 이익을 위해 사는 것에서 우리의 이웃에게로 눈길을 돌려야 한다.'는 스님의 글을 통해 세상을 '열린 눈, 열린 가슴'으로 보는 수행자의 참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욕망과 이기심에 물든 우리가 서 있는 자리를 다시 한번 겸손하게 되돌아보게 한다.

원혜 스님 지음/신국판 307면/값 8,000원

죽비 짜는 아침
미국으로 인도로 파리로 엷고 언 길을 흐르며 엮은 운수납자 지묵스님의 청정한 죽비소리.
지묵 지음/7,000원

둥지마을 이야기
대무도에서 외로운 고아들을 돌보며 살아가는 둥지마을 아빠 스님 법현의 수상집.
법현 지음/5,000원

백팔번뇌
8만4천의 법문 중 어려운 인생문제에 적합한 말씀의 구절을 골라 내어 모았다.
현재호 역/7,000원

불교입문
불교의 교리를 체계적으로 해설, 정립한 입문서로 해박한 불교지식을 접할 수 있다.
홍사성 역

우리출판사 주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3가 1-38
전화:(02)313-5047, 5056/팩스 (02)393-9696

극락문이 언제 열리는가요

덕진스님 포교·수행담

두번째 화살을 맞지 말라

부처님 말씀 귀기울이면 모든 악운이 사라진다

16년째 어린이 포교에 전념하고 있는 덕진 스님의 포교와 수행담을 엮은 수상집이다. '극락문은 언제 열리는가요' '인생묘약' '똥싸서 위안하다' '무소유의 기쁨' '잘 산다는 것은' 등의 주제 아래 덕진 스님의 경험담이 진솔하고 재미있게 담겨 있다.

'곗돈을 떼인 사람이 잠을 못자고 밥을 못먹는다면 첫번째 재앙의 화살을 맞는 것이요, 그래서 건강을 해쳐 병이 나면 두번째 화살을 맞는 것이며, 건강이 나빠져 자신의 직무나 가정일을 못하면 세 번째 화살을 맞는 것이 된다.'

《두번째 화살을 맞지 말라》를 읽는 동안 출가수행에서부터 포교일선에 이르기까지 겪은 갖가지 이야기들이 삶의 가르침으로 다가온다.

덕진 스님 지음/신국판 288면/값 8,000원

우리출판사 주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3가 1-38
전화:(02)393-5681